

중년기 남성의 일·가족 역할수행 부담 및 심리적 복지

김 윤 민*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이 영 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의 역할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의 생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중년기 남성의 일·가족 역할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는 일·가족 역할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는 일·가족 역할수행 부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군산시에 거주하며 첫 자녀가 중학교 이상 재학중인 40-59세 중년기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이용해 자료수집 하였으며, 빈도,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중년기 남성의 역할수행은 일역할과 가족역할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심리적 복지는 우울, 자존감, 생활만족도로 나누어서 분석 분석하였다.

1. 중년기 남성의 일 역할수행 부담과 남편 역할수행에 비해 아버지 역할수행 부담은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는 우울보다 자존감과 생활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2. 연령에 따른 일 역할수행 부담과 아버지 역할수행 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 역할수행 부담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55-59세 남성에게서 가장 높았다. 심리적복지 중 우울과 자존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5-59세 남성에게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남편 역할수행 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 역할수행 부담과 아버지 역할수행 부담은 차이를 보였는데, 중졸이하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복지 중 우울과 자존감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졸이상 남성에서 가장 높았고 중졸이하 남성에게서 가장 낮았다.

소득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 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 역할수행 부담과 남편 역할수행 부담은 차이를 보여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나타났다. 심리적복지 중 우울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게서 낮게, 자존감과 생활만족도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중년기 남성의 일 역할수행 부담과 가족 역할수행 부담에 따른 심리적복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 역할수행 부담이나 가족 역할수행 부담이 높은 집단은 우울이 높고 자존감과 생활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일 역할수행 부담이나 가족 역할수행 부담이 낮은 집단은 우울이 낮고 자존감과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